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권미형 · 권영은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Caregivers in Perception of Lonely Death

Kwon, Mi Hyoung · Kwon, Young Eun

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Hongseong,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analyzed the types of subjectivity that elderly who live alone caregivers have about the lonely death. **Methods:** This study objectified the subjective area by applying the Q methodology. It studied 24 caregivers in H region, who responded to 34 Q sample statements. The method of forced distribution was practiced regarding the results on a 9 points Q sample distribution char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PC QUANL program. **Results:** The caregivers' perception of lonely death has been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 1 ('type of fate-receptive invitation of lonely death'), Type 2 ('type of afterlife-expectantly invitation of lonely death'), Type 3 ('type of death preparation invitation of lonely death'), and type 4 ('type of rejection of lonely death due to attachment with life').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intervention program to solve the problems with lonely death by grasping and understanding the types of the caregivers' perception of lonely death through which it also aims to yield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ir remaining years.

Key Words: Lonely death, Elderly who live alone, Caregivers, Q methodolog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 부양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가구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2000년 54만여 가구에서 2010년 105만 가구로 조사되었고, 2012년에는 2년만에 119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82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라 노인이 속한 세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범주로써 그 누구와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혼자 사는 노인'을 의미한다(Kim, 2004). 독거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노인이 노화과정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활동 능력의 약화, 심리적 부담감, 일상 생활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함께 은퇴와 관련된 사회적 역할 상실이나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한 소외감, 고립감, 우울, 비애, 무력감, 고독감을 느끼는 것(Park, 2002) 뿐만 아니라 동거노인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문제들에서 느끼는 부정정서를 이겨내기 힘들고 더 우

주요어: 고독사, 독거노인, 돌보미, Q 방법론

Corresponding author: Kwon, Young Eun

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Daehakgil-25, Hongseong-eup Hongseong 350-701, Korea.
Tel: +82-41-630-3434, Fax: +82-41-634-8700, E-mail: kyedr@chungwoon.ac.kr

투고일: 2012년 10월 10일 / **수정일:** 2012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1일

올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Kim & Hwang, 2008; Schwartz, Snyder, & Peterson, 1984). 또한, 독거노인은 동거노인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고 느끼며 거주특성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을 포함한 사회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독감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자긍심과 삶의 질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Park, 2000; Park, 2002). 이와 같은 문제 중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학문적, 법적 정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고독사’라는 용어는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앞서 경험한 일본에서 독거노인이 죽음을 맞이한 뒤 나중에 발견되는 사회현상을 두고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혼자사는 노인이 사망한 뒤 한참 뒤에 발견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매스컴을 중심으로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Kim, Lee, Namgoung, & Kim, 2011).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단순히 노인이나 가족에게 국한되어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고독사의 증가추세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소외와 우울, 자살, 고독사, 방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07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노인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노인돌보미들이 1인당 약 26.8명의 독거노인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독거노인돌보미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지자원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과거의 가족 부양기능에 의존하던 가족 내 보육과 간병 문제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독거노인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노인돌보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돌보미들의 인식, 전문성, 역량, 가치관, 지식 등은 독거노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죽음에는 때가 없는 것이며 누구나 겪는 당위성을 지니는 생물학적 현상으로써 생의 마지막 과정에 들어선 노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생의 핵심 과업이다(Kim, Kwon, & Lim, 2004). 노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임종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Kim, Lee, & Kim, 2003) 독거노인이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독거노인에게 중요한 당면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개개인의 삶의 태도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Kim et al., 2004) 독거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에 관한 이해는 사회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어떻게 죽음준비를 하느냐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에 관한 인식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독거노인의 남은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돌보미들의 고독사에 관한 인식은 오히려 고독사에 직면해 있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인식이 반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돌보미들의 고독사에 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독거노인돌보미들의 고독사에 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식을 통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인식과 고독사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독사의 문제를 독거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깊이있게 성찰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시도되었다. 고독사에 관한 인식은 각 개인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성향이므로 개별 인간이 가지는 주관성의 세계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상호비교할 수 있게 하는 Q 방법론(Kim, 2008)을 적용하여 독거노인돌보미들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제공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올바른 이해 및 죽음준비를 위한 간호중재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독거노인돌보미들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화

한다.

-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주관적인 영역을 객관화시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주관적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 Q 모집단(Q population)의 구성 및 Q 표본(Q sample) 선정

Q 모집단이란 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서 한 문화 안에서 메시지 혹은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이나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연구와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손으로 옮겨 분류할 수 있고, 응답자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자아지시적(self-referent)이어야 한다(Kim, 2008).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와 관련된 문헌고찰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고독사에 관한 인식을 표현하는 진술문을 모두 추출하여 문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검토 및 정리하여 최종 42개의 Q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Q 표본은 Q 모집단 구성 과정을 통해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Kim, 2008)으로 고독사 인식에 관한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통된 의미나 가치있는 진술문을 통합하여 범주화하였고 대표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총 34개를 Q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 P 표본(P sample)

P 표본은 실제로 Q 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 혹은 피험자들

의미한다(Kim, 2008). Q에서는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은 표본이다(Kim, 2008). Q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며 개인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닌 한 개인 내에서 항목들의 중요성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P 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 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소표본 원칙(small sample doctrine)을 따르는 것이 좋다(Kim, 2008).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H 지역 독거노인돌보미 24명을 P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4. Q 분류과정(Q sorting)과 방법

Q 분류란 P 표본으로 선정된 각 대상자가 특정의 주제나 상황에 관한 자신의 마음 속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시키는 것 즉,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상대적인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Q 표본을 서로 비교하여 구조화 시키는 것으로 진술문을 읽은 뒤 그 진술문을 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시키는 과정이다(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효과적인 Q 분류를 위해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34개 항목이 각각 적힌 카드를 읽게 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뒤 의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대상자가 진술문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긍정하는 것(+), 중립(0), 가장 부정하는 것(-)으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게 한 후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쪽부터(+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 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는 진술문들도 분류하도록 하였다(Figure 1). 이때 Q 요인 해석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 각각 2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 및 P 표본에게 자료수집을 하

	Most disagree				Neutral			Most agree		
Score	-4	-3	-2	-1	0	+1	+2	+3	+4	
Frequency	2	3	4	5	6	5	4	3	2	

Figure 1. Q sorting distribution.

기 전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연구절차, 비밀유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설문 도중 대상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여 본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6. 자료처리 및 분석

P 표본으로 선정된 24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하기 위하여 Q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4)을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0)은 5점, 가장 긍정하는 것(+4)은 9점으로 변환시켜 코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 QUANL Program을 이용한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으로 Q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연구결과

1. 분석결과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QUANL Program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3개의 요인에서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찾은 4개의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제1유형은 '운명수용적 홀로죽음 맞이형', 제2유형은 '내세기대적 홀로죽음 맞이형', 제3유형은 '죽음준비로 홀로죽음 맞이형', 제4유형은 '삶의 애착적 홀로죽음 거부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아이겐값(eigen value)은 각각 7.6486, 2.2095, 1.634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설명변량(variance)은 0.3187, 0.0921, 0.0681로 총 변량은 0.4788로 본 연구결과가 약 4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3개 요인만 나타난 것은 마지막 요인인 제4유형은 요인 2에 적재된 Q 분류 중 약 40%가 반대극에 적재되어 있어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독립시켜 넷째 요인으로 추출하여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들 간의 상관관계는 각 요인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상관관계성이 깊고 그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 각 유형간 상관계수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은 0.427, 제1유형과 제3유형은 0.607, 제1유형과 제4유형은 0.088, 제2유형과 제3유형은 0.389, 제2유형과 제4유형은 -0.289, 제 3유형과 제4유형은 -0.064를 보여주고 있다.

각 요인별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요인가중치

(factor weight)를 살펴보면 제1유형 10명, 제2유형 3명, 제3유형 9명, 제4유형 4명이 속해 있다. 각 유형 내에서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1.000 이상) 해당요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으로 그 요인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요인가중치가 1.000 이상인 사람이 제1유형에 4명, 제3유형에 3명, 제4유형에 1명이 속해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별, 학력 및 결혼여부, 종교, 죽음에 대한 교육여부 별 특정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요인을 나누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2.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 유형의 특성

Q 요인에 분포된 진술의 특성(Table 2)과 P 표본의 관련 진술을 근거로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설의 Q 요인별 특성을 유형별로 기술하였다.

1) 제1유형: 운명수용적 홀로죽음 맞이형

제1유형에서 표준점수 \pm 1.00 이상인 Q 진술문(Table 2) 및 타 유형과 차이나는 진술문을 분석했을 때 제1유형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경우 홀로 죽음을 맞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질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지만 죽은 뒤 자신의 모습이 평온하고 깨끗하게 보여 지길 바란다.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본인의 흔적이 세상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고 의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은 없다. 그리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 이상 자녀와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고 소외감을 느끼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아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러하기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정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단지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였다.

제1유형을 대표하는 2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3474)는 50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며 종교는 천주교이고 죽음에

Table 1. P Samp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by Type

Type (n)	ID	Age (year)	Marital statu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Religion	Experience of death education	Weight
Type 1 (10)	2	50	Married	Female	High school	Catholic	Yes	1.3474
	3	52	Married	Female	High school	None	Yes	1.3173
	7	60	Widowed	Female	High school	Buddhism	No	0.8690
	9	59	Married	Female	College	None	No	0.7242
	12	55	Married	Female	High school	Buddhism	No	0.9503
	15	39	Married	Female	High school	Protestant	No	0.6649
	16	54	Married	Female	High school	Buddhism	No	0.9440
	17	48	Married	Female	High school	None	No	0.5420
	22	46	Married	Female	College	Protestant	Yes	1.1962
23	48	Married	Female	High school	None	Yes	1.3183	
Type 2 (3)	1	52	Married	Female	High school	None	Yes	0.6018
	6	64	Married	Female	Elem. school	Buddhism	No	0.6854
	8	50	Married	Female	High school	Buddhism	No	0.0242
Type 3 (9)	4	53	Married	Female	High school	Protestant	Yes	0.4582
	10	60	Married	Female	Middle school	Protestant	No	0.9807
	11	59	Married	Female	Middle school	Buddhism	No	1.2036
	13	59	Married	Female	High school	Catholic	Yes	1.0078
	14	52	Married	Female	College	Catholic	No	1.7295
	18	48	Married	Female	High school	None	No	0.5497
	20	57	Married	Female	Middle school	Buddhism	Yes	0.7495
	21	45	Married	Female	College	Protestant	Yes	0.7793
	24	47	Married	Female	College	None	No	0.9889
Type 4 (2)	5	56	Married	Female	Middle school	None	No	0.7468
	19	50	Married	Female	High school	Buddhism	Yes	1.1791

Elem. school=elementary school.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죽음이란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나만 제외되는 일은 없다.”, “혼자 죽는다고 해서 세상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홀로 맞이할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면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삶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 할 것도 아니며 단지 죽은 뒤 모습이 평온하고 깨끗하게 보여 졌으면 좋겠다고 죽은 뒤에도 나란 존재가 기억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제1유형을 대표하는 23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3183)는 48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며 종교는 없고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3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있는 삶이었다고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하여 홀로 맞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

겠으며 가치있는 삶을 살았기에 죽은 뒤에도 의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시대의 흐름이다.”, “의미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여 누구나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으로써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선 안되며 죽는다고 해서 자신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였다.

제1유형을 대표하는 3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3173)는 52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었고 종교는 없으며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3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여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제1유형을 대표하는 22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1962)는 46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대졸이고 종교는 기독교로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2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이며 나라는 존재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프지 않고 잠자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

Table 2. Q Statements and z-score for Type

No.	Q Statements	Type 1 z-score	Type 2 z-score	Type 3 z-score	Type 4 z-score
1	I don't want to think about dying alone.	-0.06	0.66	-1.76	-0.67
2	To die alone makes me feel left out from the world.	-0.66	0.63	-1.69	-0.89
3	To die alone makes me feel lonely.	-0.41	0.53	-0.41	1.37
4	To die alone is just one of those things.	0.76	0.66	0.72	-1.41
5	If I die alone, I will accept my death humbly.	1.52	1.52	0.90	-2.30
6	It's a psychologically scary and physically painful thing to die alone.	-0.35	-0.24	-0.24	1.18
7	If there is no one around me in the last moment of my life, all is likely to be vanity in life.	-0.34	-1.52	-0.12	1.50
8	If there is no one looking my last, I'll suffer from the repentance and the guilty conscience about my life.	-0.99	-1.73	-0.63	1.06
9	If I die alone, I'll appreciate the fact that it allows me to put my affairs in order.	-0.43	0.24	1.42	-1.50
10	To die alone is to be liberated from the tough and painful life.	-1.01	-0.77	0.32	-0.22
11	To die alone has nothing to do with the right and wrong of life because it is the will of God.	0.29	0.64	0.88	-0.32
12	To die alone is a kind of social phenomenon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0.28	0.01	0.56	-0.80
13	To die alone could happen to anyone.	1.33	1.52	1.82	0.22
14	If I die alone, I'm worried about what people think of me after my death.	-0.36	-1.15	-0.44	-0.70
15	I should not feel pity for dying alone without anyone.	0.48	-0.86	0.35	-0.13
16	Meeting death should be done with everyone's condolence.	-0.69	-1.78	0.07	0.32
17	To die alone means that I disappear without any trace.	-2.05	-1.15	-0.26	-1.37
18	If I die alone, I hope my image after dying can be tranquil and clear.	2.11	-0.08	0.47	1.24
19	To die alone is not a shy thing because I have lived life well up to now.	0.93	0.35	-0.39	0.80
20	I'm worried that other people are sad and feel guilty thinking that I met my death alone.	-0.22	0.18	-0.43	-0.93
21	When I die alone, it will be depressing if there is no one beside me.	-0.13	-0.54	-1.00	1.41
22	I don't want to be remembered that I was dying alone lonesomely in spite of meeting my death alone.	0.38	-0.29	-0.59	0.26
23	When I meet my death alone, I'll resent people who aren't beside me.	-1.71	-0.10	-0.98	1.15
24	Although I meet my death alone, I would like to be remembered that I was a good and meaningful person.	1.84	0.66	1.84	1.59
25	Although I meet my death alone, I won't have any feelings left for my life because I don't have to truggle with my children and feel left out.	-1.08	1.45	-0.63	-1.28
26	When I am found dead, I'm afraid that I'm treated as a worthless dead body to meet the death alone.	-0.43	-0.87	-1.10	0.57
27	If there is no one looking my last, it's just my luck.	-0.01	-1.78	-1.70	0.00
28	Although I meet my death alone, I'm not sad and lonely because I believe I'm going to a better place.	0.30	1.11	-0.42	-0.83
29	Although there are frequent occasions when people meet their deaths alone, it will never occur to me.	-1.51	0.33	-0.40	0.45
30	If I die alone, I dread being shabby-looking.	-1.13	-0.62	-1.06	0.35
31	When I meet my death alone, I'll prepare all in advance because mortuary care and funeral details are very important.	0.26	1.40	0.47	-0.80
32	Although I meet my death alone, it is important to leave a will.	0.22	-0.38	1.10	-0.13
33	If I die alone, I want to die in peace without pain.	1.66	-0.04	1.54	-0.04
34	If I meet my death alone, I'll leave my affairs in perfect order before I die (bath, clean clothes, arranging things etc.).	1.48	2.00	1.79	0.83

더라도 고통없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죽음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늙어서 아무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로써 겹쳐서 받아들여야 하며 삶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을 자신과 주변을 정리해야 하고, 죽은 뒤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겨지길 바라면서 고통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 유형으로 ‘운명수용적 홀로죽음 맞이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내세기대적 홀로죽음 맞이형

제2유형에서 표준점수 ± 1.00 이상인 Q 진술문(Table 2) 및 타 유형과 차이는 진술문을 분석했을 때 제2유형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겹쳐서 받아들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애도와 명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종 시 그 누구도 곁에 있지 않고 홀로 죽음을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다거나 삶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이 없기 때문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며 혼자 죽음을 맞이한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상 자녀와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고 소외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생에 미련이 없으며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거나 슬프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사후 처치 및 장례의 형태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고 죽기 전에 자신과 주변을 정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2유형에 속해 있는 대상자는 모두 3명으로 그 중 요인가중치가 1.0000 이상으로 높은 사람은 없으나 3명 중 2요인에 가장 가까운 대상자는 6번(요인가중치 0.6854)으로 64세 기혼여성이며 학력은 초졸이고 종교는 불교로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었다. 6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겹쳐서 받아드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과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겹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에 가장 긍정을 하였고 “아무도 보지 못해도 조용

히 고통 없이 세상을 뜨고 싶다.”, “평온하게 세상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홀로 맞는 죽음이 허무한 삶, 복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과의 갈등과 소외감, 무시당하는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므로 겹쳐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준비해야 하며 현실세계에서 자녀와의 갈등이나 소외감, 무시당하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사후 세계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현세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유형으로 ‘내세기대적 홀로죽음 맞이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죽음준비로 홀로죽음 맞이형

제3유형에서 표준점수 ± 1.00 이상인 Q 진술문(Table 2) 및 타 유형과 차이는 진술문을 분석했을 때 제3유형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에 감사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죽기 전 자신과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죽은 뒤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고 의미있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길 바라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며 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버려졌다거나 초라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혼자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을 때 무가치한 주검으로 아무렇게나 다루어 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복이 없기 때문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3유형을 대표하는 14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7295)는 52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대졸이고 종교는 천주교이며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었다. 14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돌아볼 것이다. 좋은 엄마 그리고 아내로 기억되고 싶다”, “혼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 든다면 나 자신이 무척 슬퍼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살아생전 모습이 남편이나 자식에게 좋은 사람, 의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였고, 복이 없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버려진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것 자체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항을 가장 부정하였다.

제3유형을 대표하는 11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2036)는 59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중졸이며 종교는 불교로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었다. 11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다면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와 주변을 정리하고 유언도 남기고 준비해야 한다”, “영적으로 편안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고자 하였다.

제3유형을 대표하는 13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0078)는 59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며 종교는 천주교이고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13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로 인해 혼자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녀에게 유언은 꼭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일로써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의미있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누구든 혼자 죽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의미 있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을 중요시 하고 죽기 전 자신과 주변을 정리하며 홀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삶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유형으로 ‘죽음준비로 홀로죽음 맞이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4유형: 삶의 애착적 홀로죽음 거부형

제4유형에서 표준점수 ± 1.00 이상인 Q 진술문(Table 2) 및 타 유형과 차이는 진술문을 분석했을 때 제4유형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써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한다. 만일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하여도 자신의 흔적이 모두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뒤 자신은 좋은 사람이었고 의미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죽은 뒤 모습이 평온하고 깨끗하게 보여지길 원한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은 아니며 죽는 순간 자신 곁에 아무도 없다면 인생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여기면서 심리적·육체적으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 곁

에 있어주지 않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자책스러워 한다. 또한, 더 이상 자녀와의 갈등, 소외감, 무시당하는 느낌 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생애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항목에 부정함으로서 생애 미련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4유형을 대표하는 19번 대상자(요인가중치 1.1791)는 50세 기혼여성으로 학력은 고졸이며 종교는 불교로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19번 대상자의 면담 진술문에 의하면 “가족이 있으면 덜 무섭고 덜 두려울 것 같다”, “무섭고 두렵다”, “누군가 꼭 있어야 한다”, “자녀가 보고 싶어서 싫다”라고 진술하면서 가족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많으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지거나 겸허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4유형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죽음을 맞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므로 인해 삶에 대한 후회와 허무함, 생애에 대한 미련이 남을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을 가짐과 동시에 곁에 있어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망스러움을 가진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고독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죽은 뒤 자신의 흔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원하는 유형으로 ‘삶의 애착적 홀로죽음 거부형’으로 명명하였다.

5) 합의된 진술문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돌보미들의 고독사에 관한 인식 중 각 유형별로 모두 합의하고 있는 진술문이 모두 2개가 나왔다. ‘14.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은 뒤의 나를 보게 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 ‘22. 혼자 죽음을 맞이하여도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죽어갔다고 기억되고 싶지 않다’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4유형 모두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논 의

현대사회의 과학과 경제의 발전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옴과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노인이 된 부모의 부양을 자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당연한 사회적·문화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핵가족화와 더불어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

고 있는 독거노인의 홀로 맞는 죽음 즉, 고독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커다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독거노인돌봄을 인력으로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속한 시대적 배경, 사회적·문화적 경험,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가치관 및 삶의 태도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Chung et al., 1999) 독거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돌봄의 고독사 인식은 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인생의 최종단계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인 죽음대처 즉, 죽음을 수용하는 것(Erikson, 1963)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돌봄의 고독사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다시 말해 고독사에 직면해 있는 독거노인들의 현실적인 생활과 그들의 고독사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독거노인돌봄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이해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에 관한 인식과 현실적인 고독사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돌봄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을 확인해 본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운명수용적 홀로죽음 맞이형’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삶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 없이 죽음을 맞이하며 죽은 뒤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길 바라면서 고통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였다. 즉, Kim 등(2004)이 좋은 죽음은 고통없는 죽음이라고 한 것과 같이 제1유형은 고독사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본인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겸허히 받아들여져 남겨질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길 원하고 고통없는 평온한 죽음을 바라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 그러나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능동적인 죽음 즉, 죽음을 계획하며 존엄한, 아름다운 죽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리 유언장도 써 놓고, 수의도 마련하는 등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Kim, Ha, & Kim, 2011). 따라서 제1유형은 적극적 죽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2유형은 ‘내세기대적 홀로죽음 맞이형’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므로 겸허히 받아들여

야 하기에 자신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자녀와의 갈등이나 소외감, 무시당하는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사후 세계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성으로써 Jang (2009)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큰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을 나타냈는데 이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Klenow & Bolin, 1989). 또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고달픈 삶과 원만하지 못한 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독거노인인 경우 죽음을 삶에 대한 고통으로 부티의 해방으로 보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한 Kim (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후 구원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도움이 된다는 Jang (2005)의 연구와 긍정적인 내세관은 주어진 삶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되고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Kim 등(2011)의 연구는 제2유형인 경우 내세에 대한 긍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현실생활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제3유형은 ‘죽음준비로 홀로죽음 맞이형’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고 두려워 하지 않는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의미있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죽기 전 자신과 주변을 정리하며, 유언을 남기는 것을 중요시 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삶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Lee (2005)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가중된다고 하였다. Oh (2004)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을 미리 가족과 협의할 필요가 있고, 유서로 작성함으로써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고 인간다운 죽음인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4유형은 ‘삶의 애착적 홀로죽음 거부형’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죽음을 맞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므로 인해 삶에 대한 후회와 허무함, 미련이 남을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을 가짐과 동시에 곁에 있어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망스러움을 가진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고독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죽은 뒤 자신의 흔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 것에 대해 걱

정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Belsky, 1999). Lee (2005)는 죽음에 대한 반응양식에 대해 언급하기를 수용과 거부라는 매우 양가적이고 역설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보편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죽음만은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한다고 하였다. 제4유형은 이러한 인간의 양가적이고 역설적인 측면을 잘 나타내는 유형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한 미련이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을 갖는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스러움 등에 대한 죽음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게는 삶의 보람의 회복,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바람직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Song & Yoo, 2011).

‘좋은 죽음’ 또는 ‘품위있는 죽음’이란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Kim 등(2003)은 성인과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에 관한 연구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편안함, 죽음에 대한 준비(유언, 장례준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가족과의 좋은 관계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편안함, 가족과의 좋은 관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한 준비의 순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있어서 좋은 죽음을 복(福)있는 죽음으로 설명한다.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이 복있는 죽음으로써 좋은 죽음을 나타내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죽음을 희망하지만 대상이나 연령에 따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적절한 죽음준비 교육이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가지 유형에서 모두 합의하고 있는 2개의 진술문은 ‘14.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은 뒤의 나를 보게 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와 ‘22. 혼자 죽음을 맞이하여도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죽어갔다고 기억되고 싶지 않다.’였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한국인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 하고 있음과 혼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고 싶지 않은 자신 스스로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자 함을 엿볼 수 있었다. 4유형 모두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좋은 이미지로 남길 원하면서 좋은 죽음을 맞길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독사에 관한 인식은 미묘하면서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대한 것이기에 각 유형을 완전히 분리하여 독특한 성향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두드러지게 상이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미미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독사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독사 인식유형을 대변해 줄 수는 없으나 홀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에 대한 4가지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인식유형은 제3유형인 ‘죽음준비로 홀로죽음 맞이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고독사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 보다 지나온 삶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당당히 맞이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여러 선행연구결과에서의 좋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다. 첫째,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둘째,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인간은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점과 넷째,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이러한 4가지 이유로 평등한 존재이지만 죽음을 실제로 맞이할 때는 똑같지 않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Oh, 2004).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삶에 부여하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고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함으로써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Becker, 2004).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대처하고 적응해 가며 살아가는 방식이 저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다를 것이다. 따라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잘 설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남은 여생을 가치있고 풍요롭게 보내며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죽음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노년기에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불안, 죽음태도, 품위있는 죽음, 좋은 죽음,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Kim et al., 2004; Kim & Son, 1984; Ko, Kim, & Kim, 1999; Kwon & Kim, 2003; Park, 2009; Song & Yoo, 2011). 그러나 죽음이란 것은 노인이 되

고 나서야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며 특히, 고독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죽음이란 것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얼마나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로써 고독사를 경험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독사의 문제를 독거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깊이있게 성찰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거노인돌보미들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고 4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오늘날 급변하는 가족 및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고독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되었다.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오던 죽음이 아닌 노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인식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여 고독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돌보미를 대상으로 고독사 인식유형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독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독사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 및 태도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죽음의 올바른 이해와 죽음준비를 위한 인식 유형별로 제공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독사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개발 및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한 다양한 양적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ecker, C. (2004). Death education in america reasons, levels, contents.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World's Education for Preparing Death*, 20-35.
- Belsky, J. (1999). *The psychology of aging*.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 Chung, H. K., Kim, K. H., Yeun, E. J., Ryu, E. J., Yeoum, S. G., Chung, Y. K., et al. (1999). A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dea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1), 5-16.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Jang, H. S. (2009). The relationships of subjective health, personality traits, happiness and death attitude of the Korean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2), 23-40.
- Kim, C. J., & Hwang, J. S.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le disease and depression on the seniors' ideation of suicid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ety*, 28(3), 425-442.
- Kim, H. G.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Inc.
- Kim, K. A. (2004). *Research on the posture of the elders who live alone to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K. T., & Park, B. G. (2000).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 153-168.
- Kim, M. H., Kwon, G. J., & Lim, Y. O. (2004). A study on the good death of the elderly-blessing dea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2), 195-213.
- Kim, M. S., Ha, C. K., & Kim, H. S. (2011).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the view of the afterlife and readiness for dea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1), 111-136.
- Kim, S. M., Lee, Y. J., & Kim, S. I. (2003). Attributes considered important for a good death among elderly and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ety*, 23(3), 95-110.
- Kim, T. H., & Son, Y. S. (1984). A study on attitude of the aged toward death centering on family environm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nc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1), 3-19.
- Kim, Y. S., Lee, C. M., Namgoung, S. J., & Kim, H. K. (2011).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s effectiveness to prevent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Research in Social Science*, 50(2), 143-169.
- Klenow, D. J., & Bolin, R. C. (1989). Belief in an afterlife: A national study. *Omega: The Journal of Death and Dying*, 20(1), 63-74.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Korean families prospects: 2010*. Retrieved August 20, 2012,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eb site: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 Ko, S. D., Kim, E. J., & Kim, Y. K. (199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parative education on the elderly's attitude for deat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2), 81-92.
- Kwon, Y. S., & Kim, J. N. (2003). A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4(1), 132-143.

- Lee, Y.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consciousness regarding preparation for death and anxiety of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Ministry Health & Welfare. (2010). *2010 Eldery care service guidance*. Retrieved August 20, 2012, fro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eb site: <http://www.mw.go.kr>
- Oh, J. T. (2004). *Death, a Way to Life*. Seoul: Chunglim Press.
- Park, C. H. (2002). *Qualitative study on the old man's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Park, J. E. (2009).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the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8, 79-109.
- Schwartz, A. N., Snyder, C. L., & Peterson, J. A. (1984). *Aging and life: 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2nd ed.). NY: The Dryden Press.
- Song, Y. M., & Yoo, K. (2011). A study on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4, 111-134.